



Global Goings-on

미국

**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부자들이
세금을 더 낼 수 있는 방법, 있다.
America's rich should pay
more, but there is no need to
raise their income-tax rates**

- ▶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부를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왔지 비방하거나 재분배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사업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음에도 턱없이 낮은 세율을 가진 대통령 후보에 눈살을 찌푸린 적이 없어
- ▶ 이번 선거는 달라
 -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 중인 Mitt Romney가 험악한 비상장 주식 투자 시장에서 큰 돈을 벌게 된 배경과 15%에 불과한 그의 낮은 세율에 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그 증거
 - 지난 10년간 중위소득 가족의 실질소득은 7% 감소한 반면 1920년대 이래 소득 상위

1%가 유례없는 규모로 국민소득의 몫을 차지하고 비록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의 현실로 인해 미국인들도 현 경제시스템이 부자들을 위해 기운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

- ▶ 부자들이 대통령 선거의 이슈가 되어
 - 바락 오바마는 '백만장자와 십억장자'도 공정한 자기 몫을 지불해야 한다며 백만장자들에게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현 35%에서 39.6%로 다시 올리면 나머지 98%의 미국인들은 세금을 현 수준보다 더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
 - 공화당은 세율을 올리면 일자리와 사업의지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지출을 감소하는 것 만으로도 구명 난 예산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부 공화당원들은 세율을 더 낮출 것을 요구해
- ▶ 미국의 부자들은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 세율을 올려야 할 필요는 없어
 - 통계적으로 볼 때 예산적자를 메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출을 감소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생

각과는 달리 중산층이 누리는 혜택이 줄어들어야 해

- 그러나 동시에 일부 적자는 공화당의 말과는 달리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야만 얻을 수 있어

- 민주당은 상위 1%만 더 내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른 부자들도 더 내야만 해

- 그런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조세정책은 소득세율만 깎았을 뿐 아니라 주식배당과 자본잉여에 대한 세율도 깎아 - 따라서 Warren Buffett과 Romney 같은 사람들이 매우 낮은 세율을 갖게 된 것

▶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대로 상위소득계층의 세율을 올리는 것은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내는 방법으로 최선은 아님.

- 이 방법으로는 GDP 0.3% 수준의 세수입을 늘릴 수는 있지만 미국의 복잡한 조세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없어

- 대신 GDP의 7%에 달하는 수 많은 조세허점과 공제액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- 대부분 부자들에게 유리하며 일부는 경제적 결정을 왜곡시켜

- 일부 공제, 특히 모기지론에 대한 공제는 서서히 줄여 나가야겠지만 다른 공제들은 당장 없애도 돼

- 또한 소득, 자본잉여, 주식 배당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의 법인세율을 낮출 수 있게 될 것

- 결과적으로 낮은 세율, 높은 세수입, 보다

효율적인 누진세 시스템을 얻게 될 것

2012년 1월 21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링크: <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21543165>〉

고혈압, 수술로 치료할 수 있게 돼

This year brings a breakthrough procedure to fight hypertension

▶ 혈압이 140/90mmHg 이상일 경우 적정 혈압 115/75에 비해 노화가 12년이나 더 빨라질 수 있어

- 다시 말해 혈압이 높으면 심장마비, 뇌졸중, 신장기능 손상의 위험이 따를 뿐 아니라 주름살이 늘어나고 남자의 경우엔 발기부전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

▶ 미국인 25%가 고혈압 환자이며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약과 생활습관의 조정을 통해 혈압을 조절해와

- 약과 생활습관의 조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도 있어

▶ 2012년, 획기적인 고혈압 시술법이 유럽에서는 실시되며 미국에서는 중요한 연구과정을 거치게 돼

- 이 시술은 라디오 주파수 에너지로 콩팥에 있는 일부 신경세포에 충격을 주어 그 기

- 능을 마비시키는 시술
- 이 시술은 주변 조직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혈압을 평균 32/12mmHg 강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
- ▶ 1930년대 의사들은 콩팥 동맥 주변에 일단의 신경세포들이 특정 호르몬 분비에 관여하면서 혈압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발견해
- 그 후 지난 수 십 년간 의사들은 이 신경세포들을 외과적 수술로 마비시키면 혈압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
 - 그러나 이 시술은 위험성이 높고 외과용 메스의 부작용도 있으며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약도 개발되어 그 동안 사용되지 않아
- ▶ 혈압약도 부작용이 있어
- 이런 부작용에는 체중 증가, 피로, 신장 손상, 발기 부전이 있어
 - 또한 여러 약을 복합적으로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
- ▶ 2010년 Hopital Europeen Georges-Pompidou를 포함한 24개 연구소의 연구진이 팀을 이루어 외과용 메스 대신 (혈관에 삽입하는) 도관(catheter)을 대퇴부 동맥을 통해 삽입해 콩팥에 있는 신경세포까지 보낸 후 전기 충격으로 외과 메스가 하는 일을 하게 해
- ▶ Lancet에 게재된 연구에서 연구진은 혈압약을 세 종류 이상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혈압이 160mmHg 이상인 고혈압
- 환자 106명을 모집한 후 이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뉘
- 한 그룹은 계속 약을 복용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겐 신장신경세포마비술(kidney denervation)을 실시했으며 시술로 인한 어떤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음.
 - 6개월 후 신경세포마비술을 받은 환자들의 84%에서 수축기 혈압이 10mmHg 이상 감소된 것이 나타났으며 반면 약으로 치료한 다른 그룹에서는 시술로 인한 혈압 강하의 3분의 1 수준만 감소 - 약을 계속 복용한 그룹에서의 혈압 강하는 실험에 참가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위약효과
- ▶ 신경세포마비술을 받은 환자들 중 39%의 혈압은 정상 수준까지 떨어져
- 이는 의학적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만한 혁신적인 발견
 - 의사들은 학교에서 혈압은 약으로 치료하도록 배우고 있지만 이제 물리적 시술이 약을 대체할 수도 있어
- ▶ 2012년 미국에서는 관련된 대규모의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그 후 2년 내에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을 듯
- 2012년이 고혈압 환자들에게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는 이유

2012년 1월 9일 / TIME

〈원문 링크: <http://www.time.com/time/magazine/article/0,9171,2103278,00.html>〉

국경이 무너지고 있는 제약산업

Battling borderless bugs

▶ Mumbai의 복잡한 도로변에 있는 한 단지에는 복제약을 개발 중인 미국회사인 Abbott과 신약을 개발 중인 Piramal이란 인도 회사가 들어서 있어

- Abbott은 2010년 37억불에 인도회사 Piramal을 인수해 인도의 복제약 사업에 뛰어 들어
- 미국 회사는 인도에서 복제약을 판매하기 원하고 인도회사는 미국에 신약을 팔 계획을 갖고 있어 마치 두 회사가 서로의 정체성을 잃은 듯 보여

▶ 세계 제약산업이 변하고 있어

- 그 동안 서구의 제약사들은 혁신에 기반을 두고 성장해 온 반면, 신흥시장의 제약사들은 서구 회사들이 개발한 약의 저렴한 복제약을 제조해 와
- 그러나 이제는 두 진영이 서로를 넘보고 있어

▶ 서구의 거대 회사들은 성장의 방편으로 신흥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며 특허를 받은 약 뿐만 아니라 복제약 사업에 눈독을 들여

- 신흥시장의 회사들은 족적을 넓혀 서구에서의 판매를 늘리고 있으며 연구개발에도 투자해

▶ 2010년 미국의 조제약 소비율은 2.3% 성장에 그친 반면, 신흥시장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

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

- 조사연구기관인 IMS Health는 2005년 12%에 불과했던 신흥시장의 전 세계 제약 소비율이 2015년에는 28%까지 될 것으로 전망해

▶ 서구회사들은 이 성장의 기회를 잡으려는 것

- 프랑스 거물 기업인 Sanofi-Aventis는 2010년 브라질 회사인 Medley를 인수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복제약 제조사가 돼
- 세계 최대 제약제조사인 미국의 Pfizer 역시 브라질 복제약 제조사인 Teuto의 지분 40%를 인수해
- 일부 회사들은 인수 혹은 합병된 신흥시장 회사들의 재능 있는 과학자들이 신약 개발에도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해
- Merck는 최근 베이징에 있는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위해 향후 5년간 15억불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해

▶ 반면, 많은 복제약 회사들은 혁신을 향한 경주를 시작해

- 세계 최대의 복제약 제조사인 이스라엘의 Teva는 2010년도 전체 판매의 20%를 특허약 판매로 성취해
- 브라질에서는 생명공학산업에 대한 공공 투자를 늘려
- PricewaterhouseCoopers(PWC)의 분석에 의하면 인도 제약판매는 연간 15~20%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
- 현재까지 인도시장은 신뢰할만한 브랜드

복제약을 파는 지역회사들이 장악하고 있
으나 일본 제조사인 Daiichi Sankyo, Reckitt
Benckiser, Abbott 등이 지역사들을 인수하
면서 인도시장에 침투하고 있어

- ▶ 새로운 약을 발명하고 새로운 시장을 정복하
기 위한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 질 것
- 혁신적인 부유세계의 제약회사들과 신흥

시장의 복제약 제조사들간의 간극은 점점
더 좁아질 것임.

- 질병이 국경을 모르듯 제약사들도 국경을
넘어서고 있어

2011년 1월 7일 / The Economist

〈원문링크: <http://www.economist.com/node/21542410>〉